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김하린	영어	Halynn Kim			
그룹 (O 표)	옥포상	<input type="radio"/>	한산상		명량상		
소속 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한국에서의 학교 경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음: 예 () 아니오 (<input type="radio"/>)			다녔을 경우: ()학년부터 ()학년까지			
학년/생년월일	2	학년	2010	년	7	월	9 일
제목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이순신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첩판으로 덮여 있는 배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을 만든 것보다 약 250 년이나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갑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철갑선의 이름은 거북선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거북선으로 무찔러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이랍니다.

어린시절, 이순신은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전쟁놀이하기를 좋아했지요. 물론 책읽기도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부모님은 이순신을 엄하게 길렀습니다. 이순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짖어 똑같은 잘못을 두번 하지 않도록 가르쳤지요. 전쟁놀이를 좋아하던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1592 년,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여수로 내려갔어요. 그 때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중국 명나라로 쳐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모두들 일본을 알보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이순신은

군사들을 불러 서둘러 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지혜로운 이순신 장군은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미리 하지 않은 날은 재미있게 놀기는 했지만 나중에 힘들게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지냈던 군사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힘든 훈련이 끝나면 직접 음식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셨대요. 제가 군사였어도 이런 장군님을 좋아했을것 같아요. 몇 달 뒤 마침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 거북선이 완성되었어요.

1592년 4월, 마침내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온 왜군의 수는 모두 20만 명이나 되고, 타고 온 배는 700척이나 되었어요. 왜군은 배 위에서 신식무기인 조총을 쏘아대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거북선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왜군의 배 수십척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이순신과

거북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우리 나라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순신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도 슬픔을 참고, 망가진 배를 고치고, 병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명량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13 척의 배로 130 척의 왜선을 물리쳤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였다면 무섭고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어느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거북선도 없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하셨지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장군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